

## 명문 법대 우등 졸업한 78세 노인

78세에 베트남 명문 하노이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노인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하노이 법대는 최근 역대 최고령 응오 쏘 득 씨가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1945년생인 득 씨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전쟁터에서도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닐 정도로 학구적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73세의 나이에 하노이 법대에 지원해 합격했다. 친구들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때에 득 씨는 대학 문을 두드렸다. 법학을 선택한 이유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 습득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을 이해시키고 준수하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 하노이 법대 역대 최고령 졸업생 응오 쏘 득 씨. 사진=vnexpress.net

입학 첫날, 교직원들은 그가 손주의 입학올 도우러 왔다고 착각했고, 학생들은 그를 교수로 오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령의 우등생'으로 교내 유명 인사가 됐다.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득 씨에게 많은 로펌이 채용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아직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2년 과정의 변호사 프로그램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득 씨는 "늙음, 질병,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것만은 두렵다"면서 "나 같은 노인도 아직 공부를 계속하니 젊은이들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 경찰, 도둑 잡은 시민에게 "놓아주라!"

시민들이 오토바이 부품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붙잡았으나, 경찰의 지시로 놓아줬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마이크 크리디라는 남자는 지난 26일 오후 3시쯤 오토바이 가게에 들어가다가 남자 4명이 달아나는 도둑을 뒤쫓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도둑을 잡은 뒤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크리디는 "남자가 '경찰이 오면 나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남자가 무기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놓아주라고 했다. 경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남자를 재판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경찰청장은 "신고를 받을 때마다 현장에 출동할 수는 없다"며 "경찰은 생명이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더 중요한 신고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 인력들이 우선



▲ 뉴질랜드 경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stuff.co.nz

순위가 높은 여러 건의 가족 피해 사건에 출동해 있었다"며 "도둑을 놓아주라고 한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가게 주인은 "경찰 대응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람들이 범죄로 피해를 보았을 때 누가 보호해줄 것이지"고 반문했다.

## 중국에서 유행하는 '신세 비관' 졸업사진



▲ 한 졸업생이 난간에 시체처럼 매달려 있다. 사진=웨이보(Wi Nian)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맞은 중국 대학생 사이에서 신세를 비관하는 모습의 '시체 졸업사진'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대학 졸업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이한 모습의 졸업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늘어뜨리고 난간에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한 공유 사진 아래에는 "죽는 시늉을 한 졸업생들은 재학 내내 '제로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제로 직장'의 현실을 마주한 이들"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중국을 지난 3년여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고 기업에서는 채용을 대폭 줄여왔다. 그간 취업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까지 포함하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문턱은 더욱 좁아진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중국의 소비·생산·투자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등 경제 사정이 나빠 일자리는 적은 상황이다. '제로 직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유다.

지난달 16~24세 중국 청년의 실업률은 20.8%로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올여름 사상 최대인 1,158만명의 대학생이 취업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많은 학생이 (대학 졸업에) 도달하기 위해 악명 높은 경쟁적인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거쳤는데 이제 지치고 낙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Kyung Sook Yu, D.D.S

###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